

게시판 질문에 관한 보충설명

TeX 이 문단의 행을 짤 때는 다음 두 가지 규칙을 따른다.

[규칙 1] $s \times x$ 길이만큼 다음 행과 떨어뜨린다. (let $l = s \times x$, where l is the distance to next line, $s = \backslash\text{baselinestretch}$ and $x = \backslash\text{baselineskip}$).

[규칙 2] 만약 행 사이의 간격이 a 보다 작으면 다음 행과의 간격을 b 가 될 때까지 떨어내린다. (if $d < a$ then let $l = b$, where $a = \backslash\text{lineskiplimit}$ and $b = \backslash\text{lineskip}$).

물론 규칙 1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규칙 2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적용한다. 규칙 2가 동작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 줄에 큰 수학기호가 있어서 규칙 1을 따라 조판했을 때 행 사이가 겹치는 경우이다. 행 사이가 겹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 행의 아래끝과 뒷 행의 윗끝 사이의 거리인 d 와 a 값과의 비교에 의해서인데, 이 때 a 는 `\lineskiplimit` 값을 가리킨다. 이 값은 보통 0.0pt로 설정되어 있다. 행 사이 간격은 기본적으로 12pt 이고 행높이는 10pt 이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를 쓰는 상황에서는 규칙 2가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예컨대 `\lineskiplimit`를 2포인트보다 크게 잡으면 `\linespread` 설정에도 불구하고 행 간격이 바짝 달라지게 되는데,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규칙 2가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.

한편 b 는 `\lineskip`이다. 이 값은 규칙 2가 적용될 때 다음 행까지 떨어뜨리는 길이를 의미한다. 기본값은 1pt이다. 한글 문서를 쓰는 상황에서 1포인트 값이 너무 적어서 큰 수식기호를 쓰는 경우 행간에 떨어지는 간격이 좀 너그러지지 못해보일 수 있는데, `oblivoir`의 기본값인 1.33배행간에서는 3 내지 4포인트 정도가 적당할지도 모르겠다. 다만 역시 텍스트에는 수식을 `textstyle`로 써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여전한 나의 소신이다.

이주호 님이 소개하신 예제에서 `\lineskiplimit = -1000pt`로 하면 행중에 아무리 큰 수식이 나와도 행간을 절대 바꾸지 않음으로써 상하행이 겹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,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규칙 2에 의하여 a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규칙 2가 동작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설정한 경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.